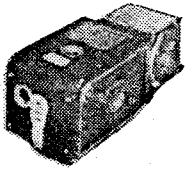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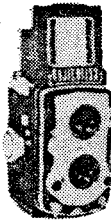


# 카메라와 寫眞 (4)

— 포켓 카메라가 나오기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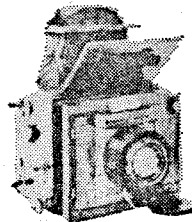
로라이·스탠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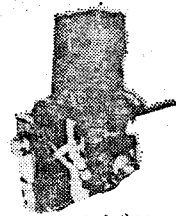
후지카프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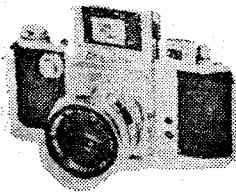
슈·리플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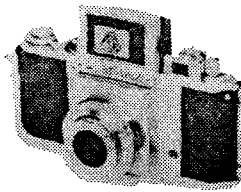
페제킬眼 리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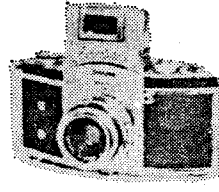
이하게파렌트·  
폴딩·리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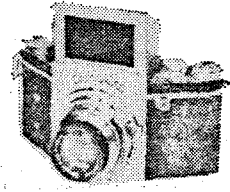
에키젝터



키네·에키젝터



아사히플렉스 I



아사히플렉스 II A

— 承 前 —

## 15. 2眼렌즈

2眼렌즈를 金屬製의 小型精密카메라로 變化시킨 것은 獨逸의 프란케·운트·하이데커로서 1929년에 나온 Rolleiflex(로라이플렉스)가 처음이다.

1931년에는 세미오토메틱의 필름을 送出하는 베비롤라이가 발매되었고 1951년에는 6×6浬으로서 최초의 풀오토메틱·필름을 보내는 롤라이·오토메틱이 완성되었다. 1950~1955년 사이에 2眼렌즈 붐이 일었고 日本市場을 리드한 것은 리코III型에서 VI까지의 薄鐵板製보다에 촬영렌즈와 비우렌즈를 大型기어

로 連동시키는 타입이었다.

그 후에도 마미야·C·프로세서 날이 2眼렌즈로 계속 제작되었으며 촬영렌즈와 비우렌즈가 같이 붙은 렌즈 프론트보트를 바꾸어 간단한 交換렌즈를 붙이 奇抜한 아이디어도 1932년에 新品을 내놓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개량되고 있다.

## 16. 포터블형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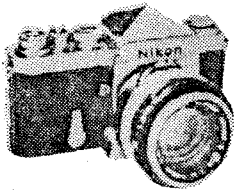
1眼렌즈는 16世紀後半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포터블형 카메라·오브스쿠라를 들 수 있으며 1839년에 銀板寫眞이 發明되면서부터 즉시 固定미라의 1眼렌즈式 다게레오타입·카메라가 나왔다.

미라를 可動式으로 한 것이 1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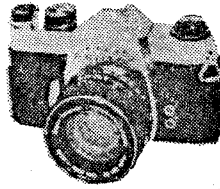
년이며 英國의 토마스·서턴이 創案하여 特許까지 取得했다. 카메라가 시판되기 시작한 것은 乾板이 工業生産化하게 된 1878년 이후부터이다.

初期의 1眼렌즈는 大型포터블이며 서턴은 포칼푸렌의 基礎가된 로라부라인·서터라는 간단한 것이 붙어 있었다. 서터幕을 올리면 그 막은 거친채로 있으므로 이때의 露光을 피하고자 렌즈에 뚜껑이 씌워지게 되어 있었다. 독일에서 Sheu Reflector(슈·페리블렉타)가 1899년에 나왔고 英國에서 1893년에 Hesekei Spiegel Reflex(헤제킬·스피겔·리플렉스)가 출현하였으며 1眼렌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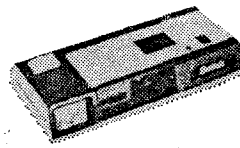
1905년쯤에는 携帶에 편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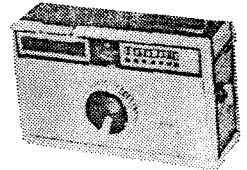
니콘 F



아사히펜텍스 SP



코닥 포켓·인스터매틱



코닥·인스터매틱 100

만들어진 포터블형 1眼렌즈 가운데 폴딩·타인이 나왔으며 이는 携帶 때에는 접고 촬영 때에는 組立하게 되어 있다. 이 형태는 1차대전 이후인 1920년쯤부터 盛行하였으며 1925년에 독일의 이하게가 제작한 Ihagee Patent Folding Reflex (이하게 파텐트·폴딩·리플렉스)를 들 수 있으며 最高級카메라에 속한다.

### 17. 精密 1眼렌즈 第1號

世界最初の 精密小型 1眼렌즈는 獨逸製이다. 이하게가 1933년에 만든 Exacta(에그젝타)가 그것이다. 베스트셀러필름을 사용하는 大判 1眼렌즈이지만 輕合金다이캐스트製보디의 정밀한 製品이었다. 1937년에는 35mm 필름을 사용하는 Kine Exakta(키네·에그젝타)가 제작되었고 이것이 세계최초의 35mm 1眼레푸이다.

1안렌즈는 필릭스가 없고 렌즈를 교환해도 항상 바른 視野를 表示하는 등의 特徵이 있다.

### 18. 東獨의 Contax와 日本의 TTL

2차대전후인 1950년에 東獨의 크라이工場에서 펜터고날·더파·프티즘을 装着한 Contax가 제작되었다. 左右·上下가 正像의 眼高位置

에 파인더가 附着된 것으로는 최초의 1안렌즈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안제뉴를 개발하였는데 1안렌즈인 이 카메라는 内部에 미라가 있어 렌즈最末端을 集點面에 접근시킬 수가 없으며 따라서 35mm 포칼프렌機的 廣角렌즈를 轉用할 수가 없었다.

日本에서는 1952년에 旭光學에서 최초로 35mm 1안렌즈도 朝日플렉스I을 내놓았다. 또 旭光學은 1954년에 쿠키리턴·미라형을 개발하였다. 이어서 旭光學은 1957년에 Asahi Pentax, 59년에는 아사히·펜텍스S2를 개발하여 시판하였으나 普及型이다.

일본에서는 戰後 生産企業끼리 熾烈한 競争이 벌어졌으며 여기에서 1안렌즈의 發展을 刺戟시켰다.

그러나 西獨에서는 라이카 M3 등 高技術의 寫眞工業이 技術革新과 생산코스트의 節減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凋落의 길을 免치 못하고 있다. 反面 일본에서는 TTL 測光方式의 35mm 1안렌즈가 1960년에 旭光學에서 아사히펜텍스·스포츠매틱을 발표했고 63년에는 토크RF 수퍼를 東京光學에서, 1964년에는 Asahi Pentax SP가 시판되었다.

그후 旭光學은 TTL에 記憶裝置를 結付시켜 無段階變速의 電子셔터에 指令을 하는 完全自動露出카

메라인 아사히·펜텍스ES를 1971년에 개발하였다.

### 19. 포켓 카메라出現

포켓·카메라는 코닥이 1972년에 개발한 超微粒子の 코닥칼라II카트리더·필름을 장진하는 카메라이며 Kodak Pocket Instamatic Camera(코닥·포켓·인스터매틱·카메라)가 세계최초의 것이다.

이 포켓·인스터매틱은 카트리저·필름을 장진하기 때문에 같은 코닥이 1966년에 내놓은 126判인스터매틱카메라와 같은 系列이라고 볼 수 있다. 카트리지가 스틸카메라로서는 1966년의 인스터매틱이 최초의 것이며 小型映畫機械로서는 1923년의 프랑스의 퍼터·베비(9.5mm攝影機)와 1940년의 마거진·시네코백·에이트등을 먼저 들 수 있다.

또한 小畫面사이저로서는 1938년에 蘇聯 라트비아의 발츠크가 내놓은 리거·미누스를 들 수 있으나 2차대전후 그 생산이 서독에 移讓되었다.

또한 8×11mm사이저는 銀板寫眞發明의 해인 1839년에 독일의 슈타인하일에서 超小型銀板寫眞機가 제작되었으므로 그 起源은 매우 오래전의 일이다. (끝)